

인 사 말

먼저, 제15대 중앙종회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제15대 중앙종회가 14대 중앙종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모든 종도들과 함께 기대합니다.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의 원력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경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기2555년 신묘년이 어느새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60년 전인 1951년

신묘년에는 국제연합(UN)이 뉴욕에 사무소를 열었고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 속에서도 서울과 부산에 전화가 개통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그리고 한국전쟁의 참화를 딛고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이며 계층간 종교간 화합입니다. 최근 일부 종교인들의 무부분별한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국민화합과 종교평화를 위해서 최대한 인내하고 노력하겠지만 불자들과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송유억불의 조선 500년과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왜색불교를 청산하고 청정 수행가풍을 되살리기 위한 불교정화의 진통을 거쳐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대한불교조계종이 1962년

출범하였습니다.

**경제 개발이 모든 것에 우선하던
시대에 우리는 1980년 10·27 법난의
아픔을 거쳐 1994년 종단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불교자주화와 정법
종단 구현을 기치로 한 종단 개혁은
종단 운영의 민주화와 교육과 포교의
강화로 표현되었습니다. 내년이면
통합종단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통합종단 출범 반세기를 맞이하여
우리종단과 불교는 미래의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 100년을 성찰하고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 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문화의 시대에 생명과 환경, 자유와 평등의 가르침인 우리 불교는 우리사회에서 많은 역할과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도들과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불기255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앙종회에 상정 하였습니다. 전국 2000여 사찰을

포함하는 종단의 재정규모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중앙종무기관의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여전히 200억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담금 의존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종무기관이 종도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모두 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33대 집행부는 종단 내외의 다양한 요구 중에서 11대 핵심과제와 25개 주요과제를 정했습니다. 이는 한정된 종단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행적으로 수행해온 각종 사업과 기관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주요과제인 승가복지, 승가교육 개선, 신도교육과 조직, 종단의 재정구조 합리화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중앙종회 의원스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종단은 대사회적 역할의 증대, 교육과 포교 분야의

**활성화, 불교 사회복지영역의 확대,
종무행정의 체계화와 각종 기반시설
건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과제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제33대 집행부가 출범 당시
발원하였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불교
중흥’을 이루는 데 제15대 중앙종회의
아낌없는 고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 11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